

외할머니 생각

최성진(시인)

벚꽃이 머물다간 공원길에
하얀 이팝나무 꽃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흰쌀가루를 초록 잎에 쏟아 붓고
오월의 손맛으로 만들어낸 백설기가
하늘 쟁반위에 수북하게 쌓여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하얀 백설기 맛은 아직 남았는데

은비녀 쪽진 머리는 먼 곳으로 가시고
정을 익혀내던 주름진 얼굴이
풍성한 꽃송이마다 아련하게 피어난다.

- 최성진의 「외할머니 생각」 전문

꽃이 필 무렵은 아직 보리는 피지 않고 지난해의 양식은 거의 떨어져 버린 '보릿 고개'를 보내던 어려운 시절이었다. 주린 배를 채워주시던 그 손길을 떠올리게 하는 이팝나무 꽃이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이 그리 오래지 않았다.

가느다랗게 넷으로 갈라지는 꽃잎 하나 하나는 마치 뜬 밥알같이 생겼고, 이들이 모여서 이루는 꽃 모양은 멀리서 보면 쌀밥을 수북이 담아 놓은 흰 사기 밥 그릇을 연상케 한다. 흰쌀가루로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백설기 맛은 아직 남았는데 이팝나무 꽃에 주름진 외할머니 얼굴이 풍성한 꽃송이마다 어린다.(윤 제 철)

작은 변화가 큰 위로가 되는

김 상 연(수필가)

수신자란의 투명한 창을 통해서 이름을 확인한다. 의례적인 손놀림으로 봉투를 뜯는다. 달마다 소비한 물질의 결과가 불연소의 검은 부호로 쏟아진다. 그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출 구석이 없을까 궁리하며 꼼꼼히 살펴본다.

도심에서 파란 하늘을 기대할 수 없듯이 편지봉투엔 더 이상 편지가 없다. 별이 가슴에 돋아나듯 두근거림으로 편지를 열어보던 시절이 아득하기만 하다. 디지털 미디어가 가져다준 결핍이요, 편리와 속도를 쫓는 욕망이 낳은 시대적 재난이 아닌 가 싶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앞에서 관악산을 바라본다. 온갖 역경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우뚝 솟아 우리 좌표가 되어주는 바위산. 햇살이 부서지는 봉우리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분출한다.

〈재난〉을 주제로 내건 전시회가 막을 내리고 〈미디어의 장〉이 올랐다. 해석이 난해한 작품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조화로움보다는 혼돈이 먼저 읽힌다. 재난도 막연하고 답답했는데 무성한 덩굴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도 만만치 않다. 작품과의 교감도 어려운데 그 이면의 목소리가 자꾸만 질문한다.

흔히들 ‘살아남은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다’는 찰스 다윈의 명언을 들먹이곤 하는데, 전시장 문턱을 넘자 고덕체로 쓴 이 문구가 거센 물살을 주저하는 내 등을 떠민다.

자연재난과 우리가 저지른 사회 재난이 생명을 억박지르고, 종횡무진으로 활동하는 미디어가 삶을 잠식한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욕구가 창출할 진화는 어디까지일까. 자연의 법칙대로 굴러가지 않을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해야 할지 궁리하고 고민해야 할 때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자연은 사람과의 타협을 수용하지 않는다. 세상도 개인의 삶을 간섭하되 정작 돌보지 않는다. 그 위력에 밀려서 낭패라고 자박하는 순간마다 한걸음씩 추락한다.

그래, 하늘을 들여놓고 살자. 변화에 적응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숨 고를 창이 필요하다. 새처럼 멀리 날고 어느 날은 깊이 잠잠할 수 있도록. 거실 벽 한 면을 파랗게 만들어 정서적 폐활량을 높이자. 마땅한 벽지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터. 물감상자를 열었다. 붓을 놓은 지 오래되어 구색이 엉망이다.

미술재료 상에 들렀다. 칠할 면이 넓어서 흰색은 180ml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두 개를 샀다. 설빔으로 마련한 꽃신을 품은 기분이랄까. 팔레트에 울트라 마린, 세룰리안블루, 코발트블루 등을 조금씩 짜놓고, 회색을 더해서 흰색을 듬뿍 섞는다. 마음이 기우는 색을 선택해서 큰 붓을 휘두르니 구름이 두둥실 떠오르고 파도가 출렁인다.

지나치게 메말라서 손바닥만 비벼도 활활 타오를 것 같던 봄날이 가고 여름이 왔다. 비가 땅을 적시고 습윤한 기운이 우주에 가득하다. 초롱불을 켜 호박 넝쿨이 성큼성큼 언덕을 오른다.

뿌리가 마르지 않은 생명은 제 기량만큼 원기를 회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기다린다. 널 모래면 태풍이 그 얼굴을 덮칠 거라는 일기예보가 빗발친다. 가을은 그리고 또 겨울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

知止止止. 생각의 중심에 묵직한 추를 달고 사는 지인의 서가에서 발견한 사자성어가 새삼 민망하다. 우리는 때때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우를 범한다. 반면에 나가야 할 때 앞장서는 용기를 뒷주머니에 사장하곤 한다.

사회재난이 날로 빈번해지고 무분별한 미디어가 범람하는 이즘. 미약하나마 비판하고 저항하면서도 어정어정 동화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파란 하늘에 불편한 예감을 풀어놓는다.